

##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 분석

김 두 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 미 아\*\*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

### 《 요 약 》

---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야학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전국 20개의 장애인야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18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전체 평균 2.39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로는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연령별로는 '41세~50세'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야학의 기관특성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권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영남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강원·제주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보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오히려 강원·제주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규모에 따라서는 11학급 이상 규모의 야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야학 교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장애인야학, 직무만족도, 장애인 평생교육

---

\* 제 1저자,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교수(kdy205@dankook.ac.kr)

\*\* 한일 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다할 때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평생교육법」 제5조 제1항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든지 원하는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왔다(김호연 외, 2014).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도 언제나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할 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379개 평생학습관의 13,23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88개(0.7%)에 불과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964개 대상 프로그램 중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5개(0.5%)에 불과하였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또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김성희 외, 2014)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미참여 경험 97.4%). 이를 다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력보완교육에 0.3%, 기초문해교육에 0.4%, 직업능력향상교육에 1.4%, 인문교양교육에 0.8%, 문화예술교육에 2.6%, 시민참여교육에 0.3%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작성하는 평생교육 통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은 항목조차 없으며, 우리나라의 각종 평생학습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의 다양한 영역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매년 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백서」에서조차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던 장애성인을 위한 자생적 교육기관으로서 제도권 교육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부족분을 메우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장애인야학이다. 장애인야학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9곳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4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설립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동아리 수준을 탈피한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의 마련은 기존 장애인야학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역사회의 장애성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지원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였다(김기룡, 2011).

장애인야학은 명실공히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서 이미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왔고,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김두영, 박원희, 2014), 장애인권 교육, 인문학 강좌, 철학반 등의 인문교양 교육과 연극, 영화, 노래,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검정고시 야학으로서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야학은 1990년대 ‘인친작은자야학’과 ‘노들장애인야학’을 시작(천성호, 2009)으로 현재는 전국에 44개의 장애인야학에서 434명의 교사가 1,384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14). 2015년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가 167개교(교육부, 2015)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처럼 장애인야학의 양적인 성장과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착 장애인야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특수교육 학술지를 통해 장애인야학의 특수교육적 의미나 운영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김병하, 2009; 김용욱, 김병하, 2007; 김용욱, 하상근, 2009)나 장애인야학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두영, 박원희, 2013; 김두영, 박원희, 2014)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야학의 교육담당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는 현장 중심적이고 실천 지향적이며, 프로그램 위주의 현장 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평생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김두영, 박원희, 김호연, 2013).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체성과 역량, 경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장애인야학의 양적인 성장에 따라서 장애인야학 운영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직무 불만족이 높아지면 이직, 결근이 늘어날 뿐 아니라, 서비스나 일의 질이 떨어지는 등 조직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이 연구는 전국의 20개 장애인야학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교육과정 편성·운영, 예산 지원, 시설, 인력 지원, 보수,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배경변인별 직무만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야학의 기관특성별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20개 장애인야학의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전국장애인야학 협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22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이 많거나 답변이 불성실하여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189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1)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일반적 현황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일반적 현황은 각 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의 직접 통화를 통해 지역, 운영주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 그리고 학급 규모 등을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5개교(25.0%), 충청권 2개(10.0%), 영남권 4개교(20.0%), 호남권 8개교(40.0%), 강원·제주권 1개교(5.0%)이고,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야학이 7개교(35.0%), 민간에서 운영하는 야학이 13개교(65.0%)이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로 살펴보면, 등록 야학이 10개교(50.0%), 미등록 야학이 10개교(50.0%)이다. 또한 학급 규모별로 살펴보면, 5학급 이하의 야학이 10개교(50.0%), 6학급~10학급 규모의 야학이 8개교(40.0%), 11학급 이상의 야학이 2개교(10.0%)이다.

<표 1>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일반적 현황

항목	구분	N	%
지역별	수도권	5	25.0
	충청권	2	10.0
	영남권	4	20.0
	호남권	8	40.0
	강원·제주권	1	5.0
운영주체별	법인	7	35.0
	민간	13	65.0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등록	10	50.0
	미등록	10	50.0
학급 규모별	5학급 이하	10	50.0
	6학급~10학급	8	40.0
	11학급 이상	2	10.0

## 2)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교사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 교사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야학교사 경력, 장애인 교육경험의 유무, 주별 수업시수, 담당학급의 평균 학생 수,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교사가 81명(42.9%), 여교사가 108명(57.1%)이었고, 연령별로는 40세 이하가 79명(41.8%), 41~50세가 49명(25.9%), 51~60세가 30명(15.9%), 61세 이상이 31명(16.4%)으로 40세 이하의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33명(17.5%), 대학교 졸업이 113명(59.8%), 대학원 재학이 8명(4.2%), 대학원 졸업 이상이 35명(18.5%)으로 대부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학에서 근무한 총 경력에 대해서는 3년 미만이 98명(51.9%), 3~6년이 54명(28.6%), 7~9년이 19명(10.1%), 10년 이상이 18명(9.5%)으로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상의 결과들은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한 김두영, 박원희(2014)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장애인야학 교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장애인 교육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73.0%)이 있다는 응답(27.0%)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고, 주당 수업시수는 3시간 이하가 119명(63.0%), 4~6시간이 53명(28.0%), 7~9시간이 4명(2.1%),

10시간 이상이 13명(6.9%)로 3시간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의 야학 교사들이 자원봉사 위주의 무급교사로 시간강사 형식의 교사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담당하는 수업 시간의 평균 학생 수는 3명 이하가 23명(12.2%), 4~6명이 91명(48.1%), 7~9명이 44명(23.3%), 10명 이상이 31명(16.4%)으로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당 인원수(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를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1년간 야학에서 교직원 관련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63.0%로 있다는 응답(37.0%)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사나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105명(55.6%)으로 있다는 응답(44.4%)보다 많았다.

<표 2>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교사의 일반적 특성

영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영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81	42.9	장애인 교육경험	있다	51	27.0
	여	108	57.1		없다	138	73.0
연령	40세 이하	79	41.8	주별 시수	3시간 이하	119	63.0
	41~50세	49	25.9		4~6시간	53	28.0
	51~60세	30	15.9		7~9시간	4	2.1
	61세 이상	31	16.4		10시간 이상	13	6.9
최종 학력	고졸	33	17.5	학급당 평균 학생수	3명 이하	23	12.2
	대학 졸업	113	59.8		4~6명	91	48.1
	대학원 재학	8	4.2		7~9명	44	23.3
	석사 이상	35	18.5		10명 이상	31	16.4
야학 교사 경력	3년 미만	98	51.9	연수경험 여부	있다	70	37.0
	3~6년	54	28.6		없다	119	63.0
	7~9년	19	10.1	자격증 유무	있다	84	44.4
	10년 이상	18	9.5		없다	105	55.6
계		189	100	계		189	100

## 2. 조사 도구

### 1) 장애인야학 교사의 일반적 특성

장애인야학 교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야학교사 경력, 장애인 교육경험의 유무, 주별 수업시수, 담당학급의 평균 학생 수, 연수경험 여부,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주별 수업시수는 '3시간 이하', '4~6시간', '7시간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교사의 직무만족도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내적 동기요인과 작업 환경과 같은 외적 위생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나(Dinham & Scott, 1998; Herzberg, 1968, 2003; Maslow, 1943, 2003), 이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장애인야학 교사가 야학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내적 동기요인보다는 외적 위생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노정희(2001)가 28문항의 5점 척도로 개발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중심 경향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야학 교사에게 적합하도록 6문항의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야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예산 지원, 시설, 인력 지원, 보수,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811로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이 각 항목별 삭제된 경우의 알파 값(Alpha if Item Deleted)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절차

연구를 위해 전국에 있는 장애인야학 중 설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20개 장애인야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장애인야학협회의 적극적인 긴밀한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고, 각 기관의 교사 수를 고려하여 총 24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23부로 회수율은 92.9% 이었다. 이 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아 분석이 어려운 설문지 34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9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개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공교수 3명과 장애인야학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문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설문지는 장애인야학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합성과 가독성 및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에게 응답 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 내용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질문이 모호하거나 설문 작성자로 하여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문항 등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 중 전국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장애인야학의 대부분이 휴교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설문 기간이 다소 길어졌다.

####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특성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s  $\alpha$ ) 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인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 검사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교육과정, 예산지원, 시설, 인력 지원, 보수, 연수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4점 척도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를 살펴보면,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2.39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60점정도 수준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M(SD)이 2.83(.5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2.40(.81),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38(.74), 인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37(.67),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2.23(.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13(.78)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아직까지도 많은 장애인야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표 3>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

영역	구분	M	SD
직무만족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만족도	2.83	.58
	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	2.13	.78
	시설에 대한 만족도	2.38	.74
	인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	2.37	.67
	보수에 대한 만족도	2.23	.90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2.40	.81
	전체	2.39	.54

지난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장애인야학이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행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제로 많은 장애인야학이 아직까지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장애인야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해 주거나 미등록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 장애인야학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먼저 장애인야학 교사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야학교사 경력, 장애인교육 경험 여부, 주당 수업시수, 그리고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첫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t = 2.538, p < .05$ ) 여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남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만족도( $t = 3.433, p < .01$ ), 시설에 대한 만족도( $t = 1.994, p < .05$ ),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t = 2.109,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짧아(김두영, 박원희, 2014) 성인 장애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 인력과 다양한 교육기자재, 그리고 교수방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장애인야학 교사의 배경변인별 직무만족도 차이

영역	구분	교육과정		예산지원		시설		인력지원		보수		연수		전체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성별	남	2.99(.56)		2.23(.84)		2.52(.85)		2.48(.69)		2.26(.95)		2.54(.84)		2.50(.59)	
	여	2.70(.57)		2.06(.73)		2.28(.62)		2.29(.64)		2.21(.87)		2.30(.76)		2.31(.48)	
	t-value	3.433**		1.529		2.145*		1.994*		.350		2.109*		2.538*	
연령	40세 이하	2.76(.56)		2.24(.79)		2.47(.62)	AB	2.44(.64)		2.41(.90)	A	2.48(.77)	AB	2.47(.50)	A
	41~50세	2.78(.55)		2.00(.74)		2.14(.71)	B	2.20(.61)		1.98(.78)	B	2.16(.77)	B	2.21(.52)	B
	51~60세	2.93(.55)		2.03(.81)		2.23(.94)	AB	2.37(.77)		2.10(.99)	AB	2.30(.92)	B	2.32(.60)	AB
	61세 이상	2.97(.55)		2.16(.82)		2.68(.75)	A	2.45(.72)		2.32(.91)	AB	2.68(.75)	A	2.54(.55)	A
	F-value	1.440		1.141		4.351**		1.485		2.635*		3.177*		3.412*	
학력	고졸	2.88(.60)		2.33(.74)		2.61(.61)	A	2.42(.50)		2.24(.94)		2.42(.90)		2.48(.52)	AB
	대졸	2.75(.59)		2.03(.76)		2.21(.65)	B	2.29(.69)		2.17(.87)		2.34(.75)		2.30(.50)	B
	대학원이상	2.98(.51)		2.26(.85)		2.65(.92)	A	2.53(.70)		2.40(.96)		2.56(.85)		2.56(.61)	A
	t-value	2.545		2.691		7.891**		2.212		.998		1.204		4.496*	
야학 교사 경력	3년 미만	2.85(.51)		2.23(.74)		2.43(.67)		2.39(.62)		2.32(.90)		2.46(.78)		2.45(.51)	
	3~6년	2.83(.61)		2.04(.84)		2.44(.77)		2.46(.75)		2.22(.95)		2.44(.88)		2.41(.58)	
	7~9년	2.95(.71)		2.00(.75)		2.16(.77)		2.21(.63)		2.00(.82)		2.26(.73)		2.26(.48)	
	10년 이상	2.56(.71)		2.00(.84)		2.17(.92)		2.17(.71)		2.06(.80)		2.11(.76)		2.18(.60)	
F-value	1.644		1.176		1.359		1.292		.943		1.194		1.676		
장애 교육 경험	있다	2.82(.56)		2.08(.72)		2.33(.79)		2.43(.73)		2.16(.86)		2.29(.88)		2.35(.53)	
	없다	2.83(.59)		2.15(.81)		2.40(.72)		2.35(.65)		2.26(.92)		2.44(.77)		2.40(.55)	
	t-value	-.027		-.573		-.538		.762		-.705		-1.124		-.583	
주당 수업 시수	3시간 미만	2.83(.57)		2.22(.77)		2.43(.74)		2.43(.63)		2.29(.92)		2.45(.79)		2.44(.51)	
	3~6시간	2.83(.61)		2.04(.78)		2.26(.76)		2.28(.74)		2.13(.90)		2.36(.79)		2.32(.60)	
	7시간 이상	2.76(.56)		1.82(.81)		2.41(.62)		2.24(.66)		2.12(.78)		2.24(.97)		2.26(.57)	
	F-value	.101		2.458		.924		1.253		.748		.614		1.476	
교육 자격 유무	있다	2.85(.57)		2.14(.81)		2.45(.78)		2.37(.67)		2.31(.91)		2.54(.78)		2.44(.54)	
	없다	2.81(.59)		2.12(.77)		2.32(.70)		2.37(.67)		2.17(.89)		2.30(.81)		2.35(.54)	
	t-value	.420		.165		1.190		-.024		1.050		2.062*		1.181	

\*  $p < .05$ , \*\*  $p < .01$

둘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 $F = 3.412, p < .05$ ) '40세 이하'집단과 '61세 이상'집단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41세~50세'집단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에 대한 만족도( $F = 4.351, p < .01$ ), 보수에 대한 만족도( $F = 2.635, p < .05$ ),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F = 3.177,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를 다시 사후검정인 Duncan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61세 이상'집단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40세 이하'집단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설, 보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41~50세'집단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 $F = 4.496, p < .05$ )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 $F = 7.891,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다시 Duncan 검사를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고졸'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야학교사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장애인을 교육한 경험의 유무에 따른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여섯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10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일곱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3. 장애인야학의 기관특성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

장애인야학의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권역별, 운영주체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학급규모별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인야학의 기관 특성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

영역	구분	교육과정		예산지원		시설		인력지원		보수		연수		전체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소제	수도권	2.82(.60)		2.08(.77)		2.28(.65)		2.21(.66)		2.08(.96)		2.38(.82)		2.31(.53)	
	비수도권	2.83(.58)		2.15(.79)		2.41(.76)		2.41(.67)		2.27(.88)		2.41(.80)		2.41(.54)	
	t-value	-.059		-.494		-.938		-1.741		-1.218		-.152		-1.078	
권역	수도권	2.82(.60)		2.08(.77)		2.28(.65) A		2.21(.66)		2.08(.96) B		2.38(.82)		2.31(.53)	
	충청권	2.81(.54)		2.13(.76)		2.39(.76) A		2.35(.61)		2.32(.79) AB		2.26(.73)		2.38(.51)	
	영남권	2.61(.62)		2.00(.82)		2.23(.56) A		2.23(.56)		1.94(.93) B		2.26(.86)		2.21(.56)	
	호남권	2.90(.57)		2.22(.80)		2.62(.74) A		2.50(.70)		2.32(.86) AB		2.51(.77)		2.51(.55)	
	강원-제주권	3.00(.47)		2.10(.74)		1.40(.52) B		2.50(.85)		2.80(.92) A		2.50(1.08)		2.38(.45)	
	F-value	1.597		.500		7.903***		1.820		2.477*		.908		2.120	
운영주체	법인	2.82(.60)		2.15(.80)		2.49(.76)		2.37(.66)		2.23(.87)		2.43(.77)		2.41(.54)	
	민간	2.83(.56)		2.12(.77)		2.27(.71)		2.37(.69)		2.23(.93)		2.38(.84)		2.37(.54)	
	t-value	-.147		.290		2.024*		.040		.019		.398		.613	
시설등록	등록	2.75(.56)		2.15(.75)		2.36(.62)		2.30(.60)		2.14(.87)		2.32(.78)		2.34(.51)	
	미등록	2.90(.59)		2.12(.82)		2.40(.85)		2.44(.73)		2.33(.93)		2.48(.83)		2.45(.57)	
	t-value	-1.827		.241		-.309		-1.430		-1.519		-1.380		-1.397	
학급규모	5학급 이하	2.79(.58) A		2.12(.78)		2.27(.75)		2.27(.68) AB		2.19(.91)		2.26(.80)		2.32(.53)	
	6~10학급	2.92(.55) A		2.16(.77)		2.49(.74)		2.51(.67) A		2.35(.86)		2.54(.79)		2.49(.53)	
	11학급 이상	2.45(.70) B		2.09(.94)		2.45(.52)		2.18(.41) B		1.73(.91)		2.55(.82)		2.24(.59)	
	F-value	3.529*		.076		2.051		3.212*		2.594		2.913		2.861	

\*  $p < .05$ , \*\*\*  $p < .001$

첫째, 장애인야학의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비수도권 지역 교사들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둘째, 장애인야학의 권역별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F = 7.903$ ,  $p < .001$ )와 보수에 대한 만족도( $F = 2.477$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다시 Duncan 검사를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강원-제주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지역의 교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수에 대한 직무만족도에서는 오히려 강원-제주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지역의 교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야학의 운영주체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t = 2.024,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법인에서 운영하는 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야학 교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장애인야학의 학급 규모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F = 3.529, p < .05$ )과 인력지원에 대한 만족도( $F = 3.212,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11학급 이상 규모의 야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야학 교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이 연구는 평생교육 담당자의 직무만족도의 높고 낮음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2.39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2.40,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38, 인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38, 인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37,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2.13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20여 년간 비제도권에서 운영난에 허덕이며,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헌신과 봉사로 연명해야만 했던 장애인야학이 비로소 본격적인 학교교육 형태의 평생교육 지원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 교육행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등록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대상 20개 장애인야학 중 아직까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기관은 모두 10개(50.0%)로 여전히 많은 장애인야학이 심각한 재정난과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또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충족하면 등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 조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김기룡, 2009).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김정재 외, 2009; 윤점룡 외, 2010; 강순원 외, 2011; 김기룡 외, 2014; 김호연 외, 2014; 김두영, 2015 등)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야학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장애인야학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장애인야학의 경우, 조건부로 시설인가를 해 주고, 해당 조건을 일정 기한 내에 갖추면 등록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08). 이를 위해서는 조건부 미인가 시설에 대해 등록시설 전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야학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로는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세 이하' 집단과 '61세 이상' 집단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41세~50세' 집단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야학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고연령·저학력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들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김두영, 박원희, 2014).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경력이 짧은 여교사들에 비해 남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고, 또한 '61세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연령·고학력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41세~60세

교사들은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위 확보와 적절한 처우에 대한 바람이 커 상대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야학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장애성인 학습자의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교구 개발, 그리고 교사들에게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특수교육 실버 자원봉사단’의 조직·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2년도부터 전문 직종 퇴직자들을 평생교육 영역에 참여케 하여 또 다른 사회적 자원을 창출할 목적으로 교원, 공무원 및 전문 직종 퇴직자들로 구성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16개 시·도에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자들을 평생교육영역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평생교육자로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7). 특수교육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퇴직자들은 매우 많다. 이들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사회 참여를 원하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로 활용한다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대의 장애인야학 학습자들의 교육만족도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교사수급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야학으로서도 흡족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6년 이하 경력교사에 비해 7년 이상 경력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 교사는 크게 상근교사와 비상근교사로 구분된다. 상근교사는 야학에 상근하면서 많은 수업과 행정 일을 맡아 처리하게 되고, 비상근교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와 수업 또는 수업보조를 맡아 일하며,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다. 상근교사들 중에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야학의 경우에는 무급의 자원봉사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그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김두영, 박원희, 2014).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고 수업시수도 많은 상근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장애인야학이 장애성인에게 보다 다양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건비 지원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 그 동안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물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야학

참교육 실천대회', '장애인 교육철학 강좌', '장애인 인권 교육 마당', '장애인야학 교사 양성대학', '장애인야학 교사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하지만 장애가 중증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더해져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 인력이 그들의 교육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효과와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장애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그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야학의 기관특성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권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영남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강원·제주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보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오히려 강원·제주권 지역 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규모에 따라서는 11학급 이상 규모의 야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야학 교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분권화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화된 사회복지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정책 추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개발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와 위축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변용찬 외, 2005). 이러한 우려는 장애인야학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장애인야학 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내에 규칙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특별교부금 형태인 일회성 예산으로만 책정되는 한계 때문에, 모든 운영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방의 시도교육청은 정부 보조 없이 자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야학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이다(김기룡, 2009).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2014)의 장애성인교육(야학)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한 야학에 지원된 예산이 2억 2천만 원인데 반해 강원도의 4개 야학에 지원된 예산은 8천 7백만 원, 전북의 6개 야학에 지원된 예산은 4천 7백만 원, 울산의 2개 야학에 지원된 예산은 7천만 원 등 지자체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격차는 일부 지역의 장애인야학 수준을 영세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수준의 일정 규모를 갖춘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예산은 특별한 기준 없이 책정되고 있는데, 자체적인 운영 역량, 도시의 규모,

학생 및 교사 수 등 장애인야학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기룡, 2009). 또한 정부는 장애인야학 운영이 지역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하여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성인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평가 결과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미흡하거나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야학이 그 동안 민간교육기관으로서 장애성인들에게 기여했던 역할과 장애성인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임을 고려해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2. 결론

「평생교육법」 제2조에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은 성인교육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야학은 분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다.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4조와 제5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야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이 시대의 책임이요,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한 의무를 다할 때 장애인야학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장애인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아직까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한 장애인야학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조건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허가하고 시설과 설비 등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정식으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수교육 실버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장애인야학의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안정적인 지위

## 3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1호)

확보와 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장애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 및 수준에 맞는 교육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야학에 대한 예산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정부는 장애인야학이 지원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적절한지, 예산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순원, 김윤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 (2011).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저자.
- 교육부 (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4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저자.
- 교육부 (2015). 2015 특수교육통계. 서울: 저자.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2013 평생교육백서. 서울: 저자.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7). 2007 평생교육백서. 서울: 저자.
- 김기룡 (2009). 장애성인의 학교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8-35. 서울: 안민석의원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김기룡 (201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 자료집, 27-70. 서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실.
- 김기룡, 김치훈, 윤진철, 이해영 (2014). 장애성인을 위한 대학중심 평생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김두영 (201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1), 21-41.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1-25.
- 김두영, 박원희 (2014).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311-339.
- 김병하 (2009). 장애인야학의 특수교육적 함의와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321-328.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 2014 장애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욱, 김병하 (2007). 장애인 야학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 질라라비 야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45-69.

- 김용욱, 하상근 (2009). 장애인야학의 전개와 운영상의 쟁점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두 야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159-186.
-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최복천, 김기룡 (200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김호연, 김두영, 홍재영, 김해동 (2014). **시각중복장애학생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노정희 (2001). 교원 직무만족의 개념화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2), 163-181.
-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임성은 (2005). 장애인 이용시설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연구**, 14(1), 25-45.
- 윤점룡, 양종국, 원성욱,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08). **제1회 전국장애인야학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서울: 저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년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저자.
- Dinham, S. & Scott, C. (1998). A three domain model of teacher and school executive career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4), 362-378.
- Herzberg, F. (2003). One more time: How do you motivate employees. In J. S. Ott, S. J. Parkes, & R. B. Simpson (Eds.), *Classic Readings in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pp. 182-190). Belmont, CA: Thomson/Wadsworth. (Reprinted from *Harvard Business Review*, 1968, 46(1).)
- Maslow, A. H. (200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In J. S. Ott, S. J. Parkes, & R. B. Simpson (Eds.), *Classic Readings in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pp. 152-162), Belmont, CA: Thomson/Wadsworth. (Reprinted from *Psychological Review*, 50, 1943).

## A Study on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mong Night School Teach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im, Doo-Young**

Dan-kook University

**Kim, Mi-Ah**

Hani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analyze job satisfaction which is aimed at whom teaches at the night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us to provide with basic information with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the night school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irst of all,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89 teachers from 20 schools, which has been analyzed for the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 first, 2.39 points on average are recorded for the job satisfaction, which show slightly higher than the normal level. By subcategory, the satisfaction points of the curriculum organization are estimated to the highest, otherwise, the ones of the budget support are estimated to the lowest. Second, as the result of the job satisfaction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eatures of the teachers concerned, male teachers are estimated to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s than female teachers by gender. By age, the ones under 40-year-old and the ones over 61-year-old show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by academic ability, the ones with graduate school diplomas or the ones who attend graduate schools show the most highest satisfaction relatively. Thir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s features of the night school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udy by area shows the lowest satisfaction points of the teachers working in Yeongnam area in general. In case of Gangwon and Jeju areas, the teachers are most unsatisfied with the facilities, but are most satisfied with the maintenance operation at the same time. Additionally, by school scale, the satisfaction points are considerably lower in case of the ones who work for the schools with more than 11 classes. Based on the study as above, an efficient operation method has been discussed.

**Key Words :** Night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b satisfacti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논문 접수: 2015. 12. 05 심사 시작: 2015. 12. 10 게재 확정: 2016. 01. 20